



빛 고을서 예술이 된 빛 여행 떠나요

국립광주과학관 빛 특별전
3D영상·공예 체험·전시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 UN(국제연합)이 선포한 '세계 빛의 해'를 기념해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빛 특별전을 개최한다. 23일 국립광주과학관은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와 한국광학회, 조명박물관 등의 후원으로 빛 특별전인 'All Light! All Right!'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우주의 시작으로 알려진 빅뱅과 우주공간의 지름길로 불리는 암흑을 지나는 '빛의 여행'으로 시작된다. 이후 '상상의 빛'과 '꿈꾸는 빛', '빛 테라피', '뉴턴의 실험실' 등 10개의 주제를 탐험해 나가며 빛의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3일 특별전 'All Light! All Right!'이 열리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빛 테라피'에서 정운학 작가의 작품 '라이트 큐브' 위에 앉아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방문객들은 과학관을 방문하면 맨 처음 중앙 홀에 있는 '스케치 아쿠아리움'을 접하게 된다. 스케치 아쿠아리움은 관람객이 직접 그린 물고기 그림을 3D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시켜 대형스크린(가로 10m×세로 3m)에 비치는 것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살아있는 물고기로 변하게 하는 체험형 전시물이다. 또 '뉴턴의 실험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프리즘 실험 장치 등 실험실 내부를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자신의 정서적·신체적 상태를 각기

다른 색의 빛으로 표현해주는 '빛 테라피'와 빛 공예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반짝반짝 빛 체험' 등 어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됐다. 여기에 아이들과 함께 과학관을 방문한 부모들의 발길도 붙잡아 줄 유명 미디어작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이남 작가를 비롯한 정운학·신성환·레이박·신정필·양승수·나인주 작가 등 7명이 참여해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한국광학회의 재능기부로 전시기간 동안 '흥미로운 빛 이야기', '빛을 연구한 과학자', '최신 광학 이슈' 등 특별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전 관람료는 개인 5000원, 단체(20인 이상) 4000원으로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당 3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와 문의전화(062-960-621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광주과학관 관계자는 "전국 국립과학

관 가운데 빛·소리 등 과학의 기본 요소와 예술을 융합시킨 과학관은 광주뿐"이라며 "세계 빛의 해를 맞아 빛고를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식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10월1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방문해 광주과학관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 등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MIG(Made In Gwangju) APP

보이스피싱·스팸전화 가려주는 내 폰 지킴이



에바인 '뭐야 이번호'

뭐야이번호

Auto Search Telephone Number



에바인(대표 윤영중)이 개발한 '뭐야 이번호'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앱이다. 이미 누적다운로드 500만건을 넘어섰다. 이 앱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실시간으로 검색해 발신자의 위치나 사무실 명칭 등을 미리 알려주는 앱으로, 이용자들은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광고성 스팸전화 등 불필요한 전화를 가려낼 수 있다. 여기에 이용자들은 이 앱에 등록되지 않았어도 대출권유나 광고 등 스팸전화일 경우 자신이 직접 전화번호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앱에 등록할 수 있다. 이용자들간 스팸 전화번호를 공유해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등록한 정보는 직접 수정이나 삭제 가능하고, 다른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도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에바인은 광주 서구 품암동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파연구원, 신안 초등생 전자파 안전교육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법'

국립전파연구원이 신안 도서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자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3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신안군 지도·압해초등학교 4~6학년생 8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법' 등 전자파 안전교육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전자파의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하고자 체험·공감형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또 프로그램에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량도 직접 측정해보고 인체 안전기준과 비교해보는 체험형 교육도 준비됐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전교생의 약 9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전무해 안전한 전자기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교육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www.emf.go.kr)' 사이트에 접속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SW전문가 양성으로 중소기업 인재난 해소한다

ICT융합협동조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창립총회

수도권에에서만 이뤄져 왔던 SW(소프트웨어)전문가 교육이 광주에서도 진행된다. 전문인력 부족난을 겪어왔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 지역 청년들이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이사장 김창식)은 23일 라다마 광주호텔에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 참여 확대와 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SW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협력기업에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전KDN, 우정

정보센터, 콘텐츠진흥원 등 빛가람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과 광주통합전산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전남지역 ICT·SW 전문인재 공급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은 지역 기업들이 그동안 어려움이 겪어왔던, 고급 SW전문가 교육인 SW·IT·DB·시스템 엔지니어와 전문프로젝트 관리 등 SW 및 ICT융합교육을 향후 6년간 광주에서 수행한다. 올해 하반기 교육과정은 광주시 남구 광주CGI센터에서 진행되며 ▲전자정부프레임워크 ▲SQL과정 ▲시큐어코딩 ▲Unix/Linux전문과정 ▲ICT전문개발자과정 등이다. 김창식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은 "광주와 전남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



는ICT기업의 SW전문가 교육문제에 대처하고, 지역의 SW전문인력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으로 무료교육과 지역 100개 협력업체와 취업연계가 가능한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육 문의는 이메일(ictkorea@ictkorea.or.kr)과 전화(062-655-2255)로 가능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KT,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지니 베이식 월 2만9900원

KT가 지난 2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음성이나 문자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 지니 베이식 요금제'는 월 2만9900원에 데이터 2500MB가 제공된다. 또 '청소년 지니 안심 요금제'는 월 3만6000원에 데이터 4500MB를 주고, 이

를 모두 소진하면 400k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다. 두 요금제 모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지니'(www.genie.co.kr)로 음악을 무제한 들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2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청소년들의 데이터 사용량은 성인보다 1.6배 많은 1400MB에 달했으나, 음성 통화량은 성인의 70% 수준인 75분에 그친 점을 요금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펜션·식당·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매매-22억
감정가/시세-30억원
대출 - 12억 5천만원 포함(연 2.1%)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1년 후 20억 정도 대출 가능
- 추가 형질변경가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